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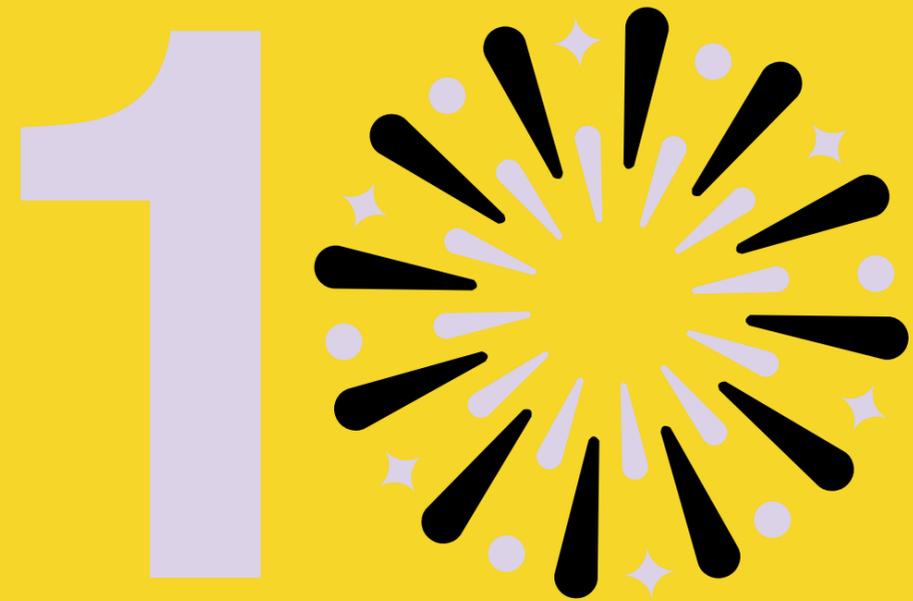


나는 [**한전**] 이다

나주에서 시작된 우리의 소중한 여정
첫 발걸음부터 당신의 응원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온 10년의 길,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준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준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는 더욱 빛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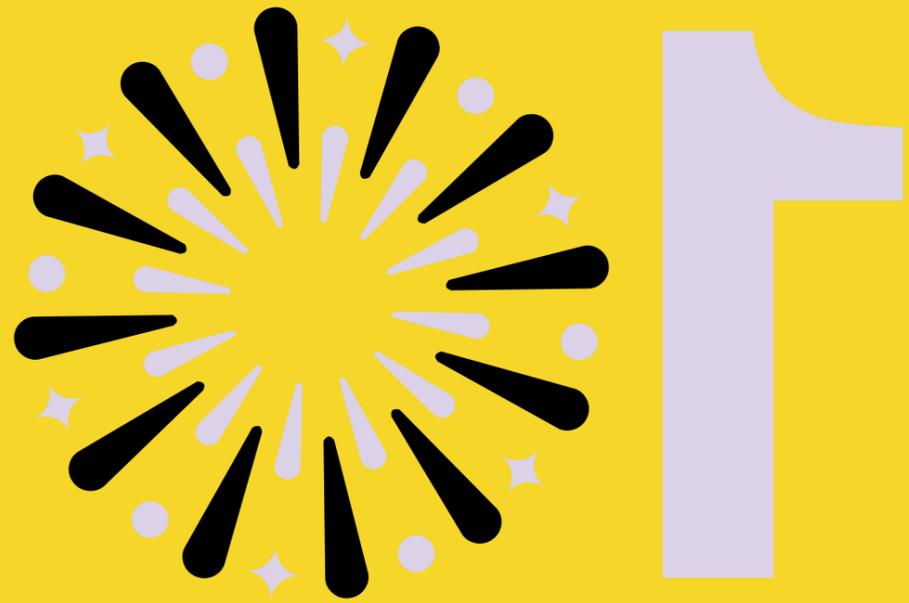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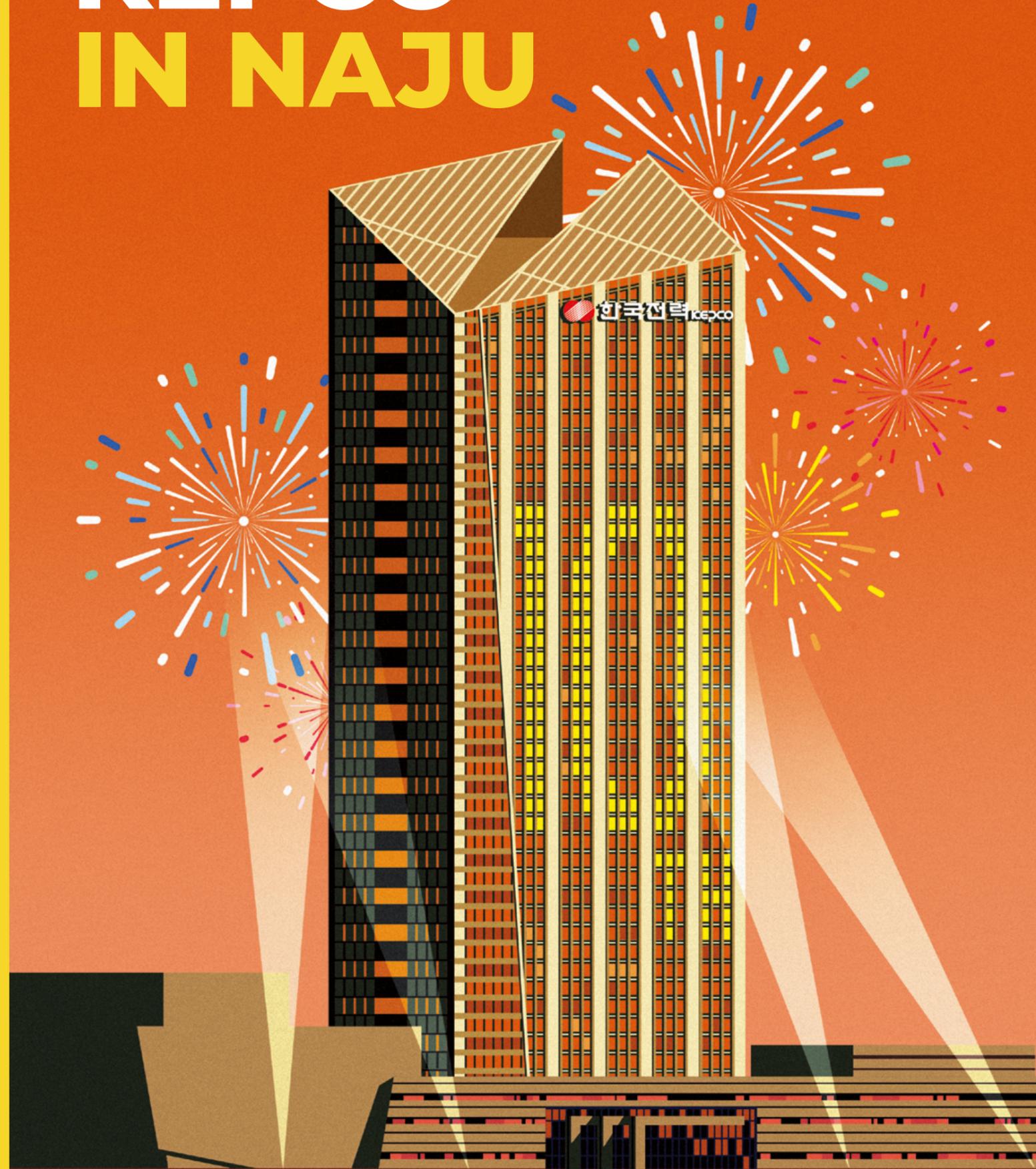
**NAJU 10th
ANNIVERSARY**

나주 본사 10주년
특집호

미래를 품은 빛, 내일로 향하는 힘찬 걸음



KEPCO IN NAJU



10년의 발자취, 나주의 바람 속에 녹아든 우리의 꿈.
그저 작은 씨앗이던 우리가 이제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here i am, i am KEPCO

그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함께해 온 서로의 존재가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i am

KEPCO



통권 618호 2024년 12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12월 5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6 VIEW

하루가 쌓여 일 년이 되고,
일 년이 쌓여 십 년이 되었습니다

12 상생 양케이트

한국전력의 본사
나주 이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6 LIGHT

나주 본사 시대, 벌써 10년
- 박혜선 노사협력처 사회공헌부 차장
- 이규택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에너지생태계협력부 차장

22 HIGHLIGHT

빛가람 KEPCO 시대, 10년의 발자취

26 응답하라 2014

10년 전 나에게 답장을 보내다

28 MAGAZINE P

잠시 멈춤의 순간들
- 나주에서 영암을 거쳐 영광까지

32 CURATION

하루를 여닫는 시간, 일출 그리고 일몰

36 ESSENTIAL KEPCO

올해를 따뜻하게 안아준
선물 같은 NEWS TOP 7

40 GREENSIGHT

정성을 담아 끼우고 엮어
새로운 쓰임이 될 수 있도록!
- 경기북부본부 파주지사 사우들의
양말목 텀블러 가방 만들기

44 TALK

빛과 어둠, 그 강렬한 대비에서
삶을 감상하다
- 서울본부 사우들의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 전시회 관람기

48 WIDE

'날개 꺾인' asics의 부활

50 K-CREATOR

실 한 줄로 엮는 세상, 뜨개
- 홍혜빈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 차장

52 人STARGRAM

54 NEWS

56 ON KEPCO

모두의 염원을 담아 10년 넘어 또 다른 시작으로



한성전기 사옥

SINCE **1898**



서울 을지로 사옥

1961

HIGHLIGHTS

KEPCO IN NAJU

10th



서울 삼성동 사옥

2014



나주 사옥 조감도

함께한 시간만큼 굳게 다져진 신뢰로 더 먼 미래 향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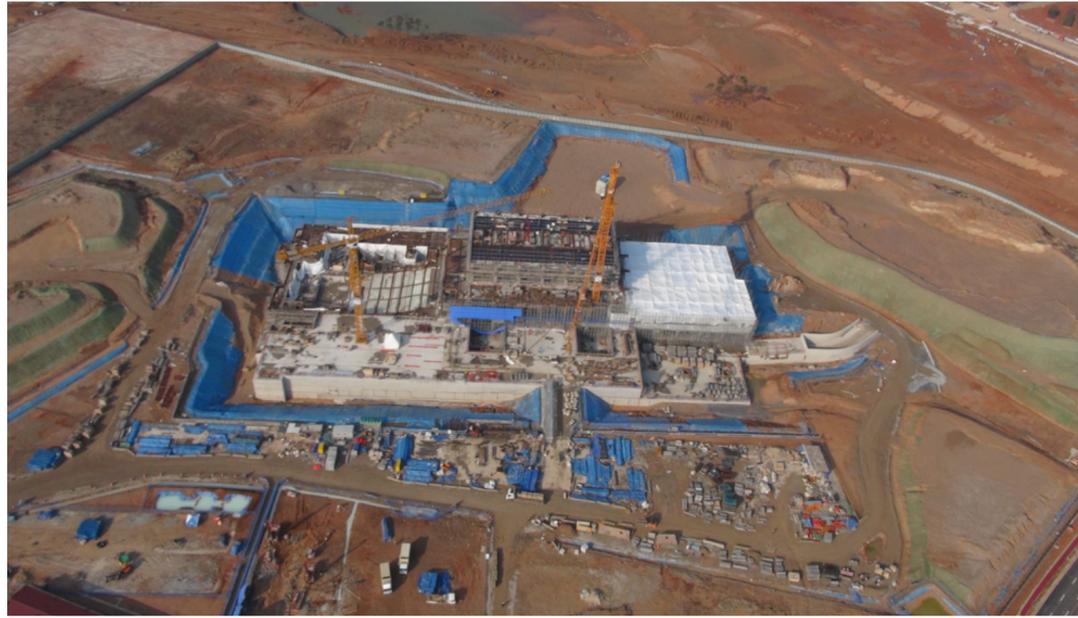
나주 사옥

우리 모두의 빛을 품고 더 넓은 세상에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하루가 쌓여 일 년이 되고,
일 년이 쌓여 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일상이 쌓여 역사가 됩니다.

나주에서의 10년,
우리가 만들어 가는 빛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2014



나주 본사 시공 초기단계.

이제, 그 뿌리 위에
새로운 가치를 뽐낼 때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하여.

2024



나주 본사가 들어오기 전 부지의 전경.
이 때는 배 밭이었다고 한다.



시공에 앞서 임직원들 앞에서
설명 중인 모습이다.

작은 걸음이 모여
함께 가는 길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쌓아온 시간들은
단단한 뿌리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본사 부지의
흙을 퍼 나르고 있다.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한전 나주 본사.



완공 직후의 모습. 빛가람동에
한전 나주 본사가 우뚝 솟아 있다.

한국전력의 본사
나주 이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전 본사 이전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축하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를 앙케이트로 만나봅니다!
각각의 인터뷰 참여자분들은 7개의 앙케이트 문항 중 해당되는 메시지를 골라 답변해 주셨습니다.

축하 메시지 / 자기소개 / 나주 이전 스토리 / 나주와의 인연 / 나에게 한전이란? / 한전 본사 나주 이전으로 인한 변화 / 한전에게 바라는 점

"10년의 여정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한전은 나주시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으로 중요한 존재며, 나주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한전 본사가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지역에 정착했으며, 지역 경제에 고용 창출과 경제적 활동을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주가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인프라가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나주시청 강속희 팀장



"1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까지! 필요를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세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 KENTECH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원자력에너지를 비롯 다양한 에너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육과 연구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수를 꿈꿨습니다. 이처럼 한전 본사의 나주 이전은 누군가에겐 꿈을 만들어주는 일, 혹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큰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김경모 교수

"한전은 빛가람동의
랜드마크입니다.
타지에 갔다 돌아올 때
한전 건물을 보면
집에 다 왔다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전기차 소유자로서 소중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기업.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렴하고 서비스도 세계적인데, 정책적인 가격 책정 관계로 재정적자 등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대하 차장

**"지역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시고 타 기관과의
교류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한전이 나주에 오면서부터 유명도시 같던 나주가 혁신 도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나주와 전남 그리고 국가를 위해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김한수 과장

**"한전 이전으로 나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전이 더
튼튼하고 성장하는 회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정정보센터도 16개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2013년 3월에 나주로 이전했습니다. 벌써 11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전 나주가 엄마 품처럼 편안해졌어요. 한전 본사가 이전하면서 주변에 건물, 상가 등이 많은 생기고 또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자체 행사도 다양해지고, 보다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맛있는 식당, 예쁜 카페가 많아져서 정말 좋아요^^
우정정보센터 윤선화·김미경 주무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보다 나은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파이팅!"**

2년마다 근무처 이동이 있는데 2019~2020년 나주 근무하고 광주로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나주로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강촌 시골마을에 전기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기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존재가 한전이죠~ 온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하게, 좋은 가격에 공급해 주세요~
나주세무서 오근님 차석

**"공공기관 이전 국가
균형발전에 힘써온 한전,
애쓰셨고 앞으로도
힘내세요!"**



한전 본사 이전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나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도움을 줬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기둥이 되어주기를!
한전KPS 손세훈 책임



**"한전이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에 보람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한전은 오늘날의 한전KDN이 있게 해준 부모와 같은 존재죠. 또 우리 회사가 지금의 전력 ICT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열어준 후견인과 같달까요. 지금의 어려움 잘 이겨내서 세계 최고의 전력 서비스와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한전KDN도 ICT 기술로 밝게 열어가는 한전의 미래 에너지 세상을 바로 옆에서 돕겠습니다.
한전KDN 홍민우 차장

**"한전은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빛나는 회사입니다"**

본사 이전 완료 전 14년 8월에 주택문제로 인해 한전보다 먼저 가족과 함께 이전한, 빛가람동 전입 5,000번째 주민입니다! 조선 18대 왕 현종 때 소(蘇)씨 중 소두산(蘇斗山)이라는 분이 1669년부터 1672년까지 나주의 목사로 재직하신 인연이 있습니다. 한전이 앞으로 100년도 국민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한전 경영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소홍석 책임연구원 가족 일동



**"새로운 시작은 설렘과 함께 늘 많은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온 10년의 시간이
앞으로 맞이할 한국전력 100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주는 저에게도 참 낯선 도시였습니다. 광주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근거리 나주는 늘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전 빛사랑어린이집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이제는 고향처럼 푸근해졌습니다.
한전 빛사랑어린이집 허기 원장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여유 있게 산책하기 좋은 곳. 호숫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자주 아이들하고 산책하러 나옵니다. 전보다 활력이 생기고 아이들과 놀러 갈 곳이 더 생겼습니다.
한전 본사 필라테스 강사 정국인



나주 본사 시대, 벌써 10년

2014년 12월 1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을 떠나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마치고 나주 본사 시대를 개막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낯설고 어색했던 시간을 지나 지역사회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자 한다.



1

상전벽해의 10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그린다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지금의 빛가람동으로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하게 됐다.

기반 시설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기저기 질척이던 도로와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들로 어수선하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크고(인구 약 4만 명) 활기 넘치는 도시(평균 연령 34.2세)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회사도 본사 근무 인원의 60%가 넘는 1,140여 명의 직원이 혁신도시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1차 1촌



낯설기만 했던 나주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한전은 2015년부터 본사 전 처(실)와 나주시 38개 마을이 1:1로 자매결연을 맺고 10년간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아따 머 달라꼬 우덜한테 찾아 왔는가(여긴 뭐 하러 찾아왔어?)" 하며 불편해하던 분위기도 잠시, 농번기 일손돕기와 명절 교류활동, 힐링 콘서트 초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제는 마을과 이웃 같은 푸근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사회공헌



명절이면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기관에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한전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비대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2023년 기준 약 1조 239억 원의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했다.(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 실적의 약 70%)

#문화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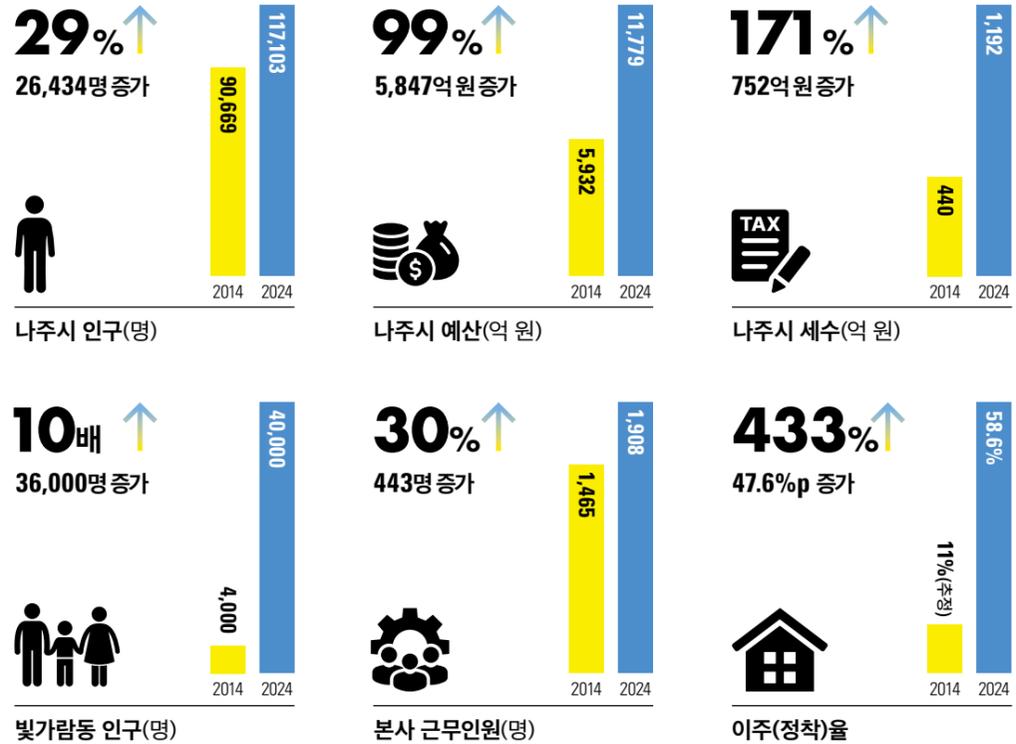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인프라의 부족이었다. 수도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전시회나 공연들을 경험하기 어려웠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축제 콘텐츠도 부족했지만, 이전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선보이는 'Fall in Art'를 매년 기획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혁신도시 이전을 기념하는 빛가람 페스티벌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개최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10년의 시간 동안 삼성동 본사 시절과 비교하여 불편하고 달라진 근무 환경에 적응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과 함께 서로의 발전을 응원한 덕분에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실제로 전라남도나 나주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의 이전을 기회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의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 도요타처럼 한 기업이 도시의 발전을 주도하고, 또 지역은 기업에 아낌없는 지지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빛나고 역동적이기를 기대해 본다.

본사 이전 10년간 나주시 및 한국전력의 변화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주시의 예산과 세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빛가람 동 인구는 10배, 한전 직원들의 이주율도 60%(소비지출 약 754억 원/년)에 이르는 등 한전은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 1막 1장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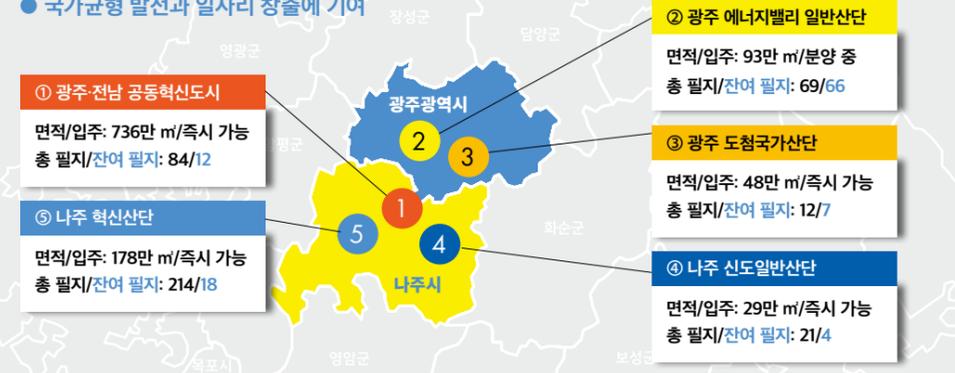
“대한민국 중심지인 서울을 떠나, 이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한전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12월,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에 동지를 틀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나주 본사 시대 랜드마크! 에너지밸리

한전은 본사 이전과 함께 지역 진흥 대표 사업인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밸리는 쉽게 말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이곳 광주·전남 지역을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자체와 협력해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공동 발전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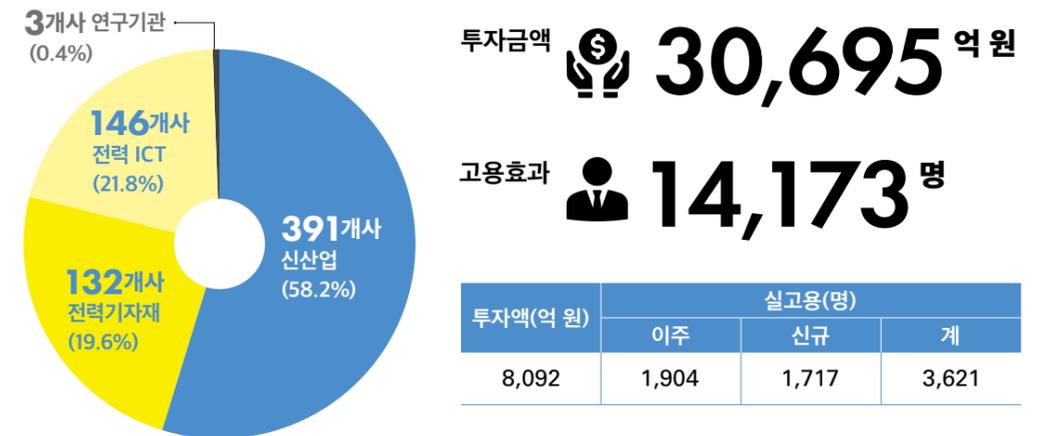
- 혁신도시 및 인근 산단(4개)에 우수 역량을 보유한 에너지 분야 혁신기업 등을 유치·육성함으로써
- 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 국가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료 제공: 나주시·광주광역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2024년 11월 기준으로 67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약 330개 기업을 에너지밸리로 유입했다. 또한,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감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 각종 정부 특구를 유치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거점을 위한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World Class, 글로벌 강소기업 등 정부 지정 유망기업을 배출하고 약 1조 6천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 7천여 명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지역산업 진흥 대통령 표창, 2019년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에너지밸리 성과



전력-에너지산업 기업이 전무했던 광주·전남 지역에 기업 집적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혁신 창출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하고 더욱 혁신적인 에너지생태계 완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전은 기존의 단편적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에너지밸리에서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에너지 분야 신기술 트렌드와 비전 제시! 글로벌 에너지산업 박람회 BIXPO

에너지밸리와 더불어, 본사 이전과 함께 한전이 새롭게 시도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다. BIXPO는 2015년 이후 매년 11월경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에너지·전력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트렌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기술전문 엑스포를 지향하고 있다.

과거 BIXPO 개최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평균
참여기업(社)	114	179	268	282	299	251	233	232
콘퍼런스(개)	13	21	38	48	51	72	45	41
등록인원(명)	7,500	13,000	17,644	18,015	28,454	18,345	17,566	17,218

특히,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BIXPO는 기존 BIXPO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에너지신기술 중심 엑스포라는 기본 철학에 걸맞게 글로벌 기업, 연구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최신 기술 전시, 신기술 언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중전 한전과 전력그룹사 홍보관을 통합한 원캡코관에서는 한전·전력그룹사의 신기술을 T-OLED, 로봇팔, 아나몰픽 등 효과적 기법들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DC 체험관에서는 이번 BIXPO의 중점 테마 기술인 DC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서 많은 참관객들의 DC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처음 시행된 신기술 언팩 행사는 유니콘, 대기업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8개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공개해 전문가, 관람객들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호응을 받았고, KBS 등 다수 언론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향후 BIXPO의 시그니처 행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으로 BIXPO 최초로 산업부 차관이 참석했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Jo Cops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장, 호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최고위급 인사도 참여함으로써 행사의 품격을 격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미래에 대한 한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BIXPO의 전국적 인지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BIXPO2024는 기술 중심 전시회로서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주기도 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BIXPO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에너지 산업과 한전의 미래를 책임질 싱크탱크 'KENTECH'

지난 2022년 3월 세계 최초의 에너지특화 연구 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와 함께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2025년 편제 완성을 목표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그리고 교원 100명 규모의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단일학부로서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환경·기후기술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여 탄소중립 2050, 세계 기후변화와 같은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 개요

교명	국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영문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KENTECH)	
학교종별	특별법 특수법인	편제정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개교일	2022년 3월	교직원	교수 100명, 직원 100명
위치	전남 나주시 혁신로 200 일원	학교면적	교지 40만 m ² , 교사 15.1만 m ²
개설학과	에너지공학부(에너지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한국에너지공대는 2017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2019년 8월 '대학 설립 기본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됨으로써, 대학 설립은 한층 가속도를 내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재정 부담 등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2019년에는 당시 제20대 국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추진을 중단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고, 설립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 선도, 대학교육 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에너지특화대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여야 합의 속에 마침내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되고, 그해 5월 13일 특별법에 근거하여 한국에너지공대가 설립됐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빛가람 KEPCO 시대, 10년의 발자취

한국전력의 본사 나주 이전으로 빛가람시대가 개막한 지 10년이 되었다. 허허벌판과 같았던 나주 빛가람동에서 땀방울과 눈물을 쏟으며 새로운 전력사업의 역사를 써온 한전의 10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본사 나주 이전 완료, “빛가람 KEPCO 시대” 개막

본사가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삼성동 본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빛가람 KEPCO 시대가 개막했다. 2005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151개 공공기관의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된 후 우리 회사는 지방 이전계획의 정부 승인 및 변경을 거쳐 2011년 7월 친환경 명품 에너지 사옥 건설의 첫 삽을 떴다. 그리고 2014년 10월, 40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 나주 본사 신사옥이 준공됐으며 그해 12월, 이전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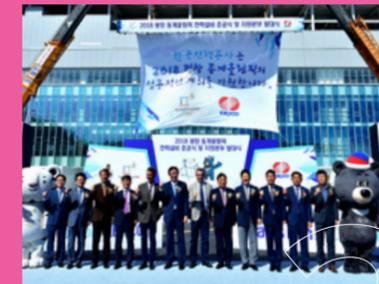


평창올림픽 성공적 지원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2.9~2.25)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3.9~3.18)에 우리 회사는 한 건의 정전도 없는 무결점 전력공급으로 성공적 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우리 회사는 정전 없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2015년부터 모두 1,509억 원을 투자해 올림픽 전력설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사와 강원지역본부에 전력 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또한, 첨단 전력ICT 감시 시스템을 구축, 대회기간 중 한 건의 정전도 없는 무결점 전력공급을 달성했다.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 준공

우리 회사는 2011년부터 시작된 8년여의 765kV 신중부에너지센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당진·태안·보령화력 등 서해안발전전력을 중부지역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중부권 계통 안정화뿐 아니라 수도권 유통선로의 역 전력흐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400억 원의 계통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19



요르단 암만 아시아 디젤 발전소 준공 및 푸제이지 풍력사업 PPA 체결

요르단에서 우리 회사는 전 세계 디젤 발전소 중 최대 규모인 574MW급 암만 아시아 디젤 내연발전소를 준공했다. 발전소는 향후 25년간 약 3억 달러의 매출이 전망되며, 설비용량은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 북에 등재됐다. 한편 우리 회사는 요르단 푸제이지 풍력사업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ESS를 활용한 핫카이드 태양광 사업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다.



Forbes 선정 글로벌 전력회사 1위

우리 회사가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았다. 2016년 5월 25일 발표된 Forbes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우리 회사는 종합순위 97위, 전력 유틸리티 분야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아시아 전력회사 중 최초로 전력회사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한전의 저력을 입증한 쾌거다.

동남아 에너지벨트 구축, 해외 신재생사업 등 세계무대에서 선전!

우리 회사는 베트남 국제입찰 석탄화력 사업인 응이손2 1,200MW 사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에 첫발을 디뎠다. 말레이시아 플라우인다 1,200MW 가스복합 공동사업자로 현지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여 말레이시아 발전사업 진출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동남아 에너지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가 최초로 추진한 해외 태양광 개발사업인 일본 치토세 28MW 태양광발전소도 준공됐다. 일본 치토세 태양광발전소는 우리 회사 최초의 해외 태양광 개발사업이며, 개발에서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 밸류체인을 완성한 ESS 융·복합형 태양광 발전소로 의미가 깊다.



2014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2020

우리사주 100만 주 돌파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이 2월, 100만 주를 돌파했다. 2018년 11월 12일 설립된 한국전력 우리사주조합은 2019년에는 전력그룹사까지 외연을 확대하여 2020년 2월 말 기준 조합원 수 14,101명, 누적 총 매입 주식 수 1,135,891주를 기록했다.

국내 최초 신재생센터 제주에 준공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종합 감사·운영하는 '제주 신재생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 신재생센터는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국내 최초 전용 센터다. 신재생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향후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전력설비 운영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전력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해외 송전망 건설 및 운영사업 최초 진출 UAE HVDC 해저송전망 사업 계약 체결

우리 회사는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국영에너지회사(TAQA)가 발주한 초고압 직류(HVDC) 해저 송전망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국제 경쟁입찰에서 유수의 경쟁사를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12월 22일 오후 2시(한국 시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ADNOC의 해상유전시설에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개 구간 총 연장 259km에 달하는 해저송전망을 건설한 후 이를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이며, 발주처와 장기 송전계약 체결로 35년의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메가 프로젝트다.



● 2020

● 2021

● 2022

2024



345kV 고덕#2 -서안성T/L 프로젝트 준공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12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기 남부지역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13년 8월 제6차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최초 계획이 수립되어 경기도 용인시-안성시-평택시 등 3개 지자체와 9개 읍·면·동을 경과하는 선로 길이 총 23.5km(가공 10.2km(철탑 35기), 지중 13.3km)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다. 최초 계획 수립 약 7년 만인 2020년 7월(산업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고, 적기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 기간을 약 8개월 단축시켜 마침내 사업을 준공했다.



● 2023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성공적 상업운전 개시

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9월 5일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UAE원전 4호기는 지난 2023년 11월 원자력규제기관(FANR)으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연료장전을 완료했으며, 약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UAE원전 1,2,3호기는 현재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 중에 있으며, 이어 4호기도 상업운전에 착수함으로써 한국의 시공 능력과 UAE의 사업관리,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사우디, 광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2개 연속 수주

우리 회사는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운영 입찰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미국 광 전력청이 발주한 ESS 연계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입찰사업에서도 낙찰자로 선정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2개 연속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 2024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우리 회사는 12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역대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왕중왕전은 범정부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인 혁신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하는 대회로 우리 회사는 'AI기반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제공' 사례를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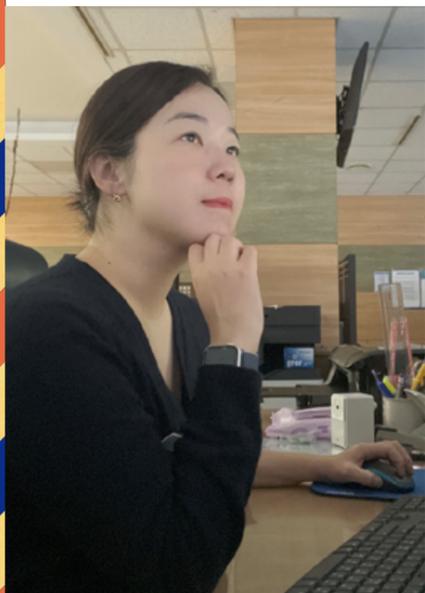
응답하라 2014



10년 전 나에게 답장을 보내다

월간 <KEPCO> 2014년 12월호에 본사 이전으로 나주에 등지를 틀게 된 세 명의 한전인이 1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실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4년 12월, 편지의 대상자인 세 명의 한전인이 '과거의 나'에게 답장을 보낸다.

29세, 나의 나주 시절을 추억하며 김지은 차장(안산지사 고객지원부)



와, 20대의 너는 참 패기도 활력도 넘쳤구나. 29세의 지은이가 쓴 글에서는 파릇파릇 돌아 나는 새싹의 힘이, 에너지 넘치는 일상의 모습이 느껴져서 덕분에 39세의 지은이는 아침부터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삼세 번이 더 가고 나니 나의 우주가 변해 있네. 과거의 너의 언행과 생각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현재의 나는, 여가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토끼 같은 딸,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업연으로 맺은 훌륭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다시 성장하려고 꿈뻐대고(?) 있어.

팔팔했던 나의 30대 초반을 나주 본사에서 지지고 볶고 했을 땐, 가끔 힘이 들어 '내가 왜 여기서 이려고 있나'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보니 그때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 한전이라는 울타리와 든든한 재우처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루키, 지은이가 감히 할 수 없었던 중요한 국제금융업무도 해보고, 쉬이 만날 수 없는 대내외 주요 인사와도 업무 미팅을 하고, 다시 복기해 봐도 참 좋았던 경험들이었어. 이젠 중간관리자가 되어 내가 받고 누렸던 회사의 자산을 후배님들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 요즘 의식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엘사 공주의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를 따라 부르는 것이야.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고 한편으로는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시간은 더 급물살을 타고 가니, 나의 우선순위 한 가지는 꼭 챙겨가면서 말아야.

그리고 꼭 건강 잘 챙겨. 49세의 지은이가 또 이 글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땐 어느 정도 애들도 크고, 회사 내에서도 내실 있는 중간관리자가 돼서 다음 Third Stage를 준비하려면 무조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해. 알지?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나는 언제나 나를 응원해.

지도상의 나주가 내 삶이 녹아 있는 공간으로! 이재준 차장(전력시장처 계약거래부)

10년이 걸렸다. 과거의 내가 이런 치기 어린 편지를 썼었다는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까지. 먼저, 10년 전의 내가 감히 질러 놓은 것들을 수습해 봐야 할 것 같다.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는 흰머리 대신 머리숱이 확연히 줄었고, 승진시험에 (끝까지) 합격하여 차장이 돼 어두운 나주를 밝히고 있다. 어린 이집에서 부쩍 말이 늘어가고 있는 딸은 너무 귀엽지만 크면 클수록 엄마가 아니라 나를 닮아가고 있다(!). 원영적 사고를 체화하지는 못했어도 덕분에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으니 럭키비키일까?

10년이 걸렸다. '나주'가 지도상의 지점이 아닌 나의 삶이 녹아 있는 공간이 되기까지. 태어나 처음 나주라는 땅을 밟던 날, 진눈깨비가 내리던 1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된 낯선 변화가 아직도 기억에 선다.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던 편의점도, 광주로 나가야만 했던 병원들도,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된 진흥탕 공사장도, 나주는 같은 기간 동안 나 자신이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진 것만 같다. 이제 이곳은 거주지를 넘어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근무지를 넘어 한전인이 된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문 곳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변화라는 것은 겪기 전에는 항상 두렵게 느껴지지만, 만약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지 않을까? 새로운 곳, 나주에서의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많은 선배배와 동료들을 얻고, 소중한 가족이 곁에 생겼듯이, 앞으로 다가올 10년에도 행복한 변화가 나와 한전에 계속 찾아왔으면 좋겠다.

PS. 한화이글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KEPCO 빅스톤, 리그 우승까지 10년 더는 못 기다려 준다. 다들 잘해 보자!!



10년 전 다짐이 이루어진 공간 박다혜 차장(에너지신사업처 사업화추진실)

원고 의뢰를 받고 두 가지 놀란 점이 있어. 첫 번째는 10년 전에 본사 소속이었는데 들고 돌아 현재 다시 본사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에 썼던 내용 중에 나를 상당수는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야. 10년 전 나주에 오고 나서 출퇴근 시간이 도보 10분 안팎으로 줄어든 건 굉장한 장점 중 하나였지. 너는 신세계라며 좋아했고, 저녁 시간에 이것저것 해 볼 여유시간이 있는 것도 만족스러워했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듯, 신체활동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무게는 점점 늘었고, 2년여가 지났을 무렵에는 잔병치레가 심해져 근무에도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지. 그래도 덕분에 결국 생애 최초로 극한의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것이 건강과 식단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잖아. 그 후로 지금까지도 틈틈이 운동하며 고혈압이나 혈당 등에 신경 써서 식사하면서 나름의 저속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전혀 연구가 없는 지역에 오게 되면서 본사 인근 전라도의 여러 곳을 둘러보기도 했지. 10년 전 자동차를 빨리 사고 싶었던 너의 바람대로, 늦게나마 본사에 다시 오게 되면서 오너드라이버가 되었네. 덕분에 계절마다 곳곳의 명소를 다니다 보니 마음을 환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의 여행 취향도 변했지. 과거에는 대도시나 휴양지 위주로 다녔다면, 지금은 대자연이나 풍경을 보는 것이 더 좋아졌어. 나는 혼자 있을 때 마음에 평온을 얻는 내향적 성향이. 그래서인지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혼자 지내보면서 심적인 안정감도 생겼단다. 그래서 업무 역량과 개인적인 경험 축적에도 도움이 되었고, 주관이 확고해지면서 나의 방향에 대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단다. 앞으로의 나는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미래의 나뿐 아니라 본사와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우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기를 우리 응원하자꾸나.





잠시 멈춤의 순간들

나주에서 영암을 거쳐

영광까지

흐르는 강, 이어지는 삶
나주 느리지전망대

영산강

나주평야

‘첫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흐려진다. 그 자리에는 일상이 자리 잡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만을 찾는다. 나주에서의 10년이 우리에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익숙함에 취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 어쩌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찬란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놓쳤던 그 순간들이 다시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다.

흐르는 강, 이어지는 삶

나주 느리지전망대

발걸음이 바쁜 도시에서는 모든 순간이 흘러가는 배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붙잡고 싶었다. 자연의 고요 속에서 찰나를 만끽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느리지전망대로 향했다.

나무들 사이로 하얀 지붕이 눈에 띄면서 영산강이 나지막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전망대에 가까워질수록 높이가 실감 났다. 4층까지 이어지는 긴 계단은 오르기 쉽지 않았지만, 고생 끝에 펼쳐진 풍경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시야에 마음이 시원하게 열렸다. 초겨울의 바람마저 더할 나위 없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영산강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나주평야를 품고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간혹 날갯짓하는 겨울 철새들이 하늘을 갈랐다. 멀리서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으며,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잠잠하게 흐른다. 강물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굴곡이 있다.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 날도 있고, 거칠게 흘러 마음이 무겁고 힘든 날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나주 시민들의 든든한 전력 지킴이, 나주지사 사우들



월출산을 마주보고 있는
영암지사 사우들

경이로운 존재감에서 자연의 숨결을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영암은 월출산 국립공원이 유명하다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시내의 낮은 건물 뒤로 제 몸집을 목격하게 드러내고 있는 월출산을 보자마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달았다. 영암 시내 어디를 가든 월출산이 보였다. 그 위압감은 경이로웠다. 저 거대한 존재 앞에서는 제아무리 휘황찬란한 초고층 빌딩이라 하더라도 맥을 추스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월출산은 달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달밤에 바라보는 산의 형태가 아름다워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주봉인 천황봉을 중심으로 사자봉, 구정봉이 펼쳐져 있다. 코스는 다양했지만 천황사를 시작점으로 선택했다.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깊고 짙은 숲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산길은 초입부터 강렬했는데, 완만한 오르막이라 하더라도 바위가 곳곳에 자리해 무심코 내디딘 발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다. 길게 뻗은 나무들이 가끔씩 사이를 벌리면 월출산의 거친 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산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월(月)처럼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바위는 차가운 회색빛을 띠며 수직으로 솟아 있었고, 그 틈으로 비집고 자란 잡초들이 생명력을 증명하듯 흔들렸다. 월출산은 단지 '국립공원'으로 끝나는 산이 아니었다. 그 위엄과 생동감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숨결과 같았다. 영암은 그저 월출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월출산이 영암을 존재하게 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시간

영광 백수해안도로



월출산

경이로운 존재감에서
자연의 숨결을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천천히 호흡하면 스며드는 심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시간.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또 다른 세계로의 초대였다. 바다 위로 길고 선명한 빛의 물결이 펼쳐졌고, 갯벌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은 경계선이 뚜렷해 두 세계가 조우하는 듯했다. 해는 곧 떨어질 듯 떨어질 듯 아슬아슬 하늘에 걸려 있었다.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차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말없이 모든 감각을 잠식했다. 나지막한 파도 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갈매기들이 유유히 날며 자연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차가 서행할 때마다 보이던 작은 어촌 마을들은 마치 정지된 시간 속의 풍경 같았다.

백수해안도로의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만 있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바쁘게 달려온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만의 속도로 호흡할 수 있었다. 창밖의 바다를 보며 지나온 삶의 굴곡과 앞으로의 길을 천천히 되새길 수 있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심이 스며드는 공간이었다.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영광지사 사우들

하루를 여닫는
시간,

일출 그리고 일몰

하루는 하늘을 밝게
빛내며 시작되고,
어둠을 끌고 오며 마무리된다.
그 중심에는 뜨겁게 빛났다
사그라지는 태양이 있다.
제각각 다른 풍경을 품은
전국의 일출, 일몰 명소를
소개한다.

☀️ 항구 도시의 웅장한 아침,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에는 여러 관광지가 있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 낮과 밤 할 것 없이 부산 시민과 여행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곳의 상징은 바다 위에 놓인 광안대교다. 밤에는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일출 또한 특별하다. 수평선에서 떠오른 태양이 광안대교 구조물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 점점 밝아지는 하늘과 웅장한 대교, 그리고 붉은 태양의 완벽한 하모니는 부산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해돋이이기도 하다. 가만히 백사장 위에 서서 바라봐도 좋지만, 해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일출을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 산맥의 능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강원도 평창 육백마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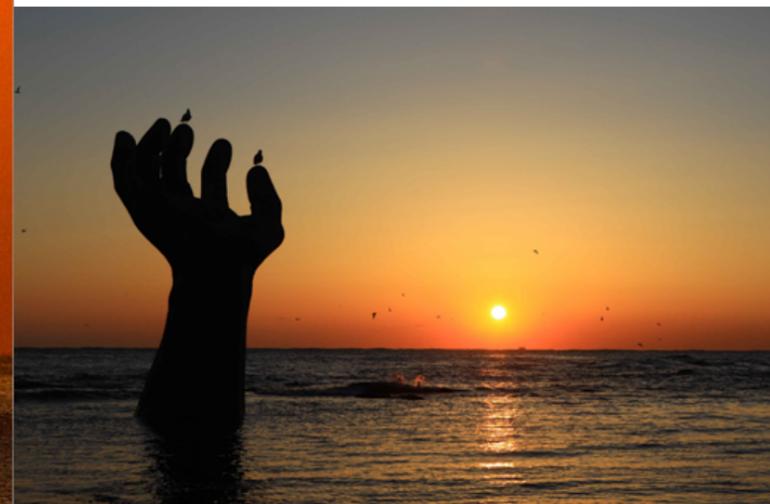
일출하면 모두가 바다에서 보는 풍경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지만 산에서 마주하는 해돋이도 특별하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육백마지기는 해발 1,200m의 고원지대다. 크고 작은 눈발이 구름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낮에 보아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매력은 새벽 시간이다. 구름과 안개, 그리고 은은하게 번지는 햇빛이 신비로운 일출을 완성한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고원의 모습은 바다에서 만나는 해돋이와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특히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일렁이고, 가을엔 황금빛 역세, 겨울엔 새하얀 눈으로 덮여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한국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태양,

경북 포항 호미곶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지 호미곶은 동해안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특징은 푸른 바다 위로 불쑥 솟은 '상생의 손'이다. 사람과 자연의 화합을 의미하는 조형물로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특히 인기 있는 시간대는 일출. 하얀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에서 상생의 손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은 웅장함마저 느껴진다. 붉게 선을 그리는 수평선, 금빛으로 물드는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와 태양. 지도상으로 한반도에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 새해 일출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해맞이 축제도 열린다.

✓ 포항 호미곶 일출



☀️ 평화롭고 고요한 일출,

경남 창녕 우포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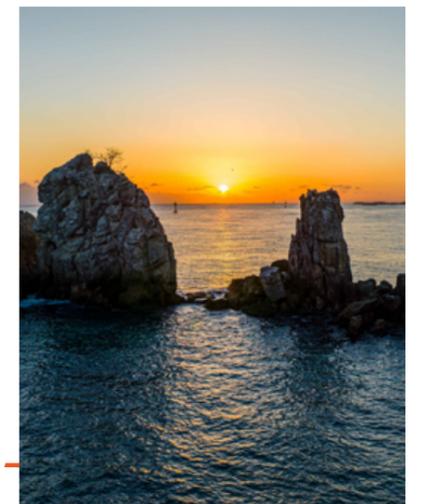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일출 명소로 '우포늪'이 있다. 이곳은 경상남도 창녕에 숨어 있으며 무려 1억 년이라는 역사를 품은 한국 최대 습지다.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물 같은 곳이지만 일출 시각에는 황홀할 만큼 아름답다. 사진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포토 스팟일 만큼 특별한 풍경을 보여준다. 거울처럼 잔잔한 물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닿으면 뜨거울 것 같은 해가 천천히 떠오른다.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드는 늪지의 풍경은 고요하고 몽환적이다. 적막을 깨우는 새들의 울음소리까지 더해지면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진다.

☀️ 하늘에 떠오른 촛불, 강원도

강원도 동해 추암

평범한 바다 일출이 지겹다면, 동해의 추암 촛대바위로 가자. 바람과 바다가 섬세하게 깎은 이 바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뾰족한 촛대 모양으로 솟아 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 있는 바위의 모습이란. 자연물 그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이곳은 동해의 특별한 일출 풍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촛대바위 사이에서 떠오른 해가 마치 촛불처럼 바위 끝에 걸치기 때문이다. 사람의 손이 아닌 오직 자연으로만 만들어진 이 황홀한 순간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만날 수 있다.

✓ 추암 촛대바위 일출



SUNRISE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일몰



서울 노들섬 일몰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낸 노을,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사진가들 사이에서 이미 아주 유명한 일몰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해 질 무렵이 되면 웅장한 건축물 위로 해가 지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인천 송도와 영종도 부근에 사람이 모인다. 붉게 저무는 하늘과 서서히 빛을 내며 밝아지는 인천대교. 이 모습 가장 보기 좋은 장소는 영종도 씨사이드파크다. 해안을 따라 길게 놓인 산책로와 캠핑장이 놓여 있어 가릴 것이 하나도 없다. 특별하게 노을을 감상하고 싶다면 해 지는 타이밍에 맞춰 인천대교를 달려보아도 좋다.

비밀스러운 일몰 맛집,

충북 청주 정북 토성

충청북도 청주의 정북 토성은 역사의 흔적을 품은 고요한 유적지다. 이곳은 조선 시대에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사각형 형태의 토성이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닌 만큼 유명세는 낮지만, 청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몰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현지인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다. 이곳의 진가는 해 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일몰이 가까워지면, 성벽 주변은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든다. 토성에 홀로 선 소나무 옆으로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말 것. 토성 위로 올라가면 넓은 평야를 황금빛으로 적시며 사라지는 노을도 만날 수 있다. 성벽에 가만히 앉아 고요한 일몰을 즐기고 싶다면 꼭 한번 찾아가 보길.

도시의 일몰,

서울 노들섬

일몰을 보기 위해 꼭 멀리 갈 필요는 없다.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노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 한가운데 자리 잡은 노들섬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특히 일몰 시간이 되면 한강 위로 드리운 태양 빛이 노들섬의 자연과 어우러져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넓은 잔디밭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탁 트인 시야 덕분에 더 감동적으로 느껴진다. 노들섬의 산책길을 천천히 걸으며,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풍경을 감상해 보면 어떨까. 크고 작은 빌딩과 강 사이로 태양이 사라지면 하나둘씩 빛이 들어오며 시작되는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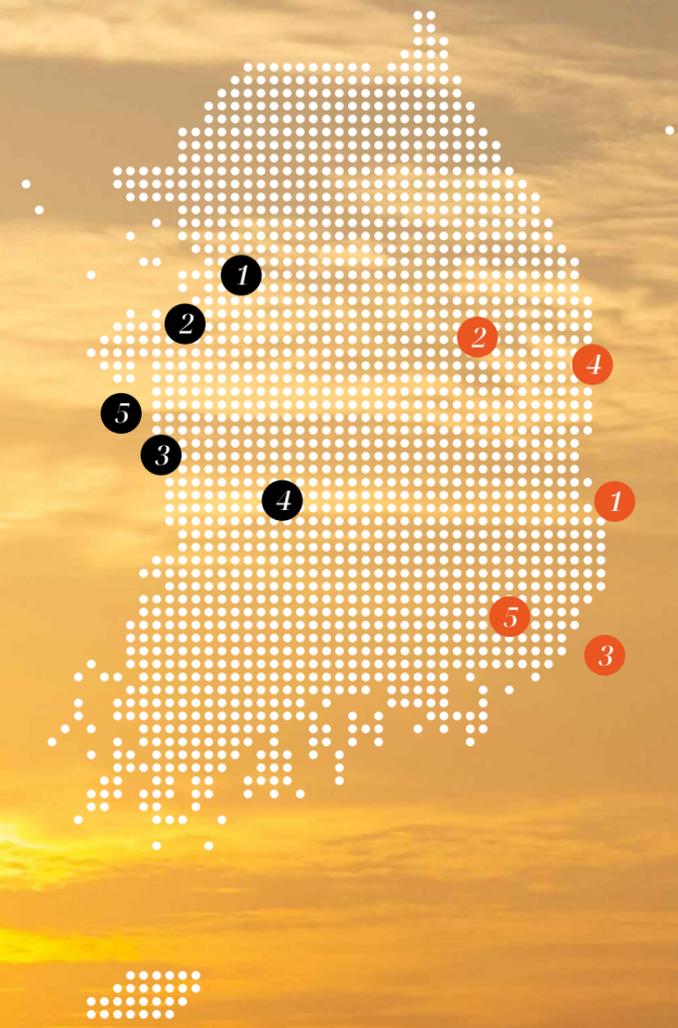
가장 유명한 일몰 명소,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낮에는 고운 백사장과 푸른 바다로 사랑받는 해수욕장이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해변에 자리 잡은 두 개의 거대한 기암괴석이 이곳의 노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바위의 이름은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해 질 무렵,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이 바위 사이로 태양이 걸린다. 바다 위로 태양 빛이 반사되며 만들어내는 금빛 물결과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빛은 그 자체로 환상적이다. 이 시간대의 꽃지해수욕장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릴 만큼 사진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 1. 경북 포항 호미곶
- 2. 강원도 평창 육백마지기
- 3.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 4. 강원도 동해 추암
- 5. 경남 창원 우포늪

- 1. 서울 노들섬
- 2.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 3. 충남 서천 장항송림
- 4. 충북 청주 정북 토성
- 5.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소나무 숲과 서해 일몰,

충남 서천 장항송림

서천의 장항숲은 바다와 소나무 숲이 만나는 독특한 공간으로, 해 질 무렵 숲 전체가 빛으로 변한다. 울창하게 뻗어 있는 나무들 사이로 붉은 태양 빛이 스며들어, 마치 숲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느낌이 든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덕분에 언제 와도 짙은 일몰을 마주할 수 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로 해가 저무는 풍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숲 사이에서 산책하며 노을을 즐기다가, 장항 스카이워크에 올라 높은 곳에서 노을을 내려다봐도 좋다. 숲과 바다, 두 가지 일몰을 마주하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올해를 따뜻하게 안아준 선물 같은

NEWS TOP 7



한전, 나주로의 본사 이전 10주년 기념!

한전이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지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배 밭이었던 부지에 건물 뼈대가 올라가고, 허허벌판에서 완공식을 진행하고, 서울 강남 옛 본사에서 짐을 챙겨 나주로 내려온 게 엇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릅니다. 그사이 나누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베리아'라고 불릴 만큼 황량했던 곳에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죠. 한전의 제2고향이라 불러도 좋을 나주, 앞으로의 10년도 잘 부탁해요!

글 편집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노벨문학상 한강, 신드롬을 만들어 내다

노벨평화상에 이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소설가 한강이 그 주인공인데요. 올 3월 <작별하지 않는다>로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을 수상하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준 후 노벨문학상 후보자가 되더니 기어 이 영광의 주인공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한강 신드롬이 일었는데요. 국내외 서점에서 한강의 작품의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채식주의자>를 원작으로 한 연극이 파리 로데옹 극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K-문학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목도한 것 아닐까요?



영재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임윤찬, 한국 첫 그라모폰상 수상

피아노 영재로 주목받았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상인 영국의 그라모폰 클래식 뮤지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초 발매한 첫 앨범인 '쇼팽: 에튀드'로 피아노 음반 부문과 젊은 예술가 부문을 함께 수상했는데요.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피아노 음반 부문은 클래식 음반 분야에서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 권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임윤찬은 "세상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듣고 느낀 것들을 포함해 사소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웠던 그 순간을 기억해 제33회 파리올림픽 개최

평화의 상징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올림픽이 2024년 제33회를 맞이하며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많은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여자 양궁 10연패를 비롯해 남자 자유형 400m 수영에서 은메달을, 태권도(남자 58kg/여자 57kg)와 배드민턴(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땀했습니다. 이외에도 사격에서 김예지 선수가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올림픽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금 13개, 은 9개, 동 10개로 국가 순위 8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1위입니다.



천사가 남기고 간 선물 '얼굴 없는 천사'의 남모르는 기부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는 14년째 조용히 기부하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명절을 앞둔 즈음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후원물품을 행복복지센터 주차장에 남몰래 놓고 가는데요. 2011년 설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마다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이웃을 위해 과일, 쌀, 떡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나눔은 설을 기점으로 25번째였다고 하네요. 하남동은 얼굴 없는 천사가 후원해준 물품을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며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얼마나 고운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팡팡레인저 탄생! 한국에서 처음 탄생한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지난 9월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닙니다.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으로 이루어진 다섯쌍둥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기록은 우리나라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케이스고요.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로, 처음에 태명을 '팡팡'이라고 지었다가 다섯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팡팡레인저'로 불렀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다섯 명의 팡팡레인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 위험 무릅쓰고 이웃 구한 시민영웅 10인

매년 들려오는 시민영웅들의 활약! 시민영웅 10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방청이 '119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119 의인상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는데요. 올해는 시민 윤도일, 이화성, 홍시호, 심용택, 원재현, 강충석, 김진홍, 김정열, 유세림, 이승주 씨가 119 의인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라도, 이웃의 위험을 모른 척하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서로를 위한, 서로의 선물



우리가 삶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값비싼 물건일 수도, 특별한 여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우리를 지탱해준다. 특히 책 속에서 발견한 한 문장을 선물처럼 건넬 때, 그 울림은 더욱 깊다.

글: 편집실

우리가 서로에게 집이 된다는 것



“너는 나의 집이야.”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문장이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다. 누군가의 존재가 내게 ‘집’이 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내게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집과 같은 존재를 찾는다. 이렇듯 이 문장에서 ‘집’은 육체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뜻한다. 한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줄 때, 그 사람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각인된다. 그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선사하는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우리는 서로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야”** 라는 문장도 주목할 만하다.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질 수 없다. 서로의 무게를 나누어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이어갈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서로에게 ‘집’이 된다.



너를 통해 나는 성장하고, 나를 통해 너도 성장하길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에서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상대방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나의 가능성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존재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곤 한다. 이 구절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일깨워 준다. 누군가가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줄 때, 그 관계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장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에게도 이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해준다.



누적된 시간만큼 쌓이는 관계의 서사

가즈오 이시구로는 <남아 있는 나날>에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삶을 엮으며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구절을 남겼다. 이 구절은 관계의 누적된 순간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나타낸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일어나거나 지나간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쌓여 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쌓아 나간 시간들이 결국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는 단기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되고 쌓여가는 순간들의 집합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 속 문장들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랑, 연대,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의 힘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그들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성을 담아
끼우고 엮어
새로운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분부 파주지사 사우들의
양말목 텀블러 가방 만들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번에는 파주지사 요금관리부 노혜지 차장과 최유영 대리, 고객지원부 서경민 사원과 최현지 사원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쓸모없이 버려지는 양말목을 재료로 텀블러 가방 만들기에 도전했다.

양말목의 가치 있는 변신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쉽게 버리는 시대. 공장은 설 새 없이 물건을 찍어내고 쓰레기는 보란 듯이 거대한 산을 이룬다. 이러한 쓰레기는 태워지거나 매립되면서 치명적인 온실가스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를 불러온다. 쓰레기 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야 한다.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는 유리와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 버려지는 소재에 주목한다. 양말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자투리 천인 양말목도 그중 하나다. 지금까지 그 어떤 용도로도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처리해 왔지만 이제는 알록달록 다양한 컬러에 신축성까지 좋아 친환경 업사이클링 소재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인형, 가방, 바구니, 방석, 티코스터 등 양말목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니 충분히 가치 있는 변신이다.



완성된 양말목 텀블러 가방

양말목을 엮으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손



내 손으로 만드는 텀블러 가방

쌀쌀한 바람을 뚫고 파주지사 사우들이 지구를 위한 착한 공예를 실천하는 '공방초목'에 모였다. 이번 체험은 양말목으로 텀블러 만들기로 사우들 모두 설렘 반, 두려움 반이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손재주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도 앞서기 때문. 하지만 걱정 따위는 필요 없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기만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양말목이다. 공장에서 면지에 가득 쌓인 상태로 들어온 양말목을 여러 번의 세탁과 건조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다. 이제는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하고 텀블러 가방의 바닥 부분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때다. 기본 엮기부터 고리 만들기, 고리에 끼워 연결하기 등 선생님의 시범을 본 후 서투르지만 부산하게 손을 움직인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손이 따라주지 않는다. 한 코를 엮을 때마다 "이거 제대로 한 게 맞나요?" 하며 서로 질문하기 바쁘다.



양말목 공예의 장점은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참을 고생해 엮었는데 한 코가 빠졌다거나 다른 코에 양말목을 연결했다거나 하는 난감한 순간이 온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찬스를 써야 한다. 어디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체크하고 다시 한번 과정을 복습한다. 잘못된 부분을 풀어내고 능숙한 솜씨로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양말목을 엮어가는 선생님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고 있자니 놀라울 따름이다. “오!”, 모두들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온다.

시행착오를 거쳐 엮고 풀고 또 엮기를 반복한 결과 노혜지 차장은 상큼한 형광 그린 컬러, 최유영 대리는 신비로운 보라색, 서경민 사원은 가을 느낌의 황토색, 최현지 사원은 짙은 다크 블루 컬러의 텀블러 가방을 완성해 간다. 만들기에 집중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인 탓에 막 바지에는 손과 어깨가 아파오지만 멈출 수는 없다. 각자 원하는 높이까지 양말목을 끼우고 엮어 쌓아 올린 후 가방끈과 예쁜 꽃 키링까지 만들어 달고 나서야 텀블러 가방이 완성되었다.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던 순간도 잠시, 버려지는 양말목에 솜씨를 더해 새로운 쓰임을 만드니 뿌듯함이 밀려온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라이프를 추구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친환경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앞장설 수 있길 바라본다.

TIP

양말목 텀블러 가방 만들기



준비물 : 양말목

- 1 양말목을 두 번 꼬아 4개의 링을 만든다.
- 2 4개의 링 사이로 양말목 6개를 넣어준다.
- 3 6개의 양말목 중 하나를 오른손 검지에 끼워 꼬아준다.
- 4 오른손 검지 바로 앞에 있는 양말목을 그 사이로 통과시킨다.
- 5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법을 거쳐 1단을 완성한다.
- 6 1단의 각 코에 양말목 2개씩을 넣어 동일한 방법으로 2단을 완성한다.
- 7 이제부터 각 코에 양말목 1개씩을 넣어 층층이 쌓아 올린다.
- 8 텀블러 높이에 맞춰 매듭을 마무리 짓고, 이어서 가방끈을 만든다.

mini interview



노혜지 차장 ● 요금관리부

체험 공방에 와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양말목 공예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친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어 소중한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최유영 대리 ● 요금관리부

손재주가 없어 걱정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고, 단순한 작업을 하며 머리를 비울 수 있어 매력적이었어요. 손과 어깨가 아프긴 하지만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어 뭔가 뿌듯해요.



서경민 사원 ● 고객지원부

한 땀 한 땀 양말목을 끼우고 묶는 과정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텀블러를 챙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귀엽고 멋진 가방이 생기니 이제부터 열심히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최현지 사원 ● 고객지원부

개인적으로 텀블러를 즐겨 사용하는데, 양말목으로 직접 만든 가방을 만들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잘못해도 쉽게 다시 고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어요. 완성품을 만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Caravaggio

빛과 어둠,
그 강렬한
대비에서
삶을
감상하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 전시회 관람기

PANEL

임은미 과장 서울본부 고객지원부

세 아이의 엄마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춰가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임은미 과장은 최근 취미로 테니스를 시작했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다는 임은미 과장을 응원한다.

정상용 과장 서울본부 지역협력부

1995년 입사해 한전이나운서를 역임한 바 있는 정상용 과장. 직장인이자라면 당연히 일을 잘해야 하지만, 그만큼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문화생활을 권장하고 공유하는 'TALK' 코너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달음에 참여했다.

강원희 대리 서울본부 배전운영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명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TALK'에 신청하게 됐다. 강원희 대리는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하지만 열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던 카라바조처럼 자신도 이중적인 면을 적절히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정시경 대리 서울본부 전략경영부

평소 <KEPCO>에서 'TALK' 코너를 즐겨 본 정시경 대리는 직접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문화생활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번 카라바조 전시를 통해 바로크 미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영감을 얻은 만큼,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한다.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당대 유명 화가로 화실에서는 붓을 휘둘렀지만, 로마 뒷골목에서는 칼을 휘둘렀던 범죄자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3대 화가 카라바조의 전시회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카라바조,
<과일바구니를 든 소년>

“그림은 전반적으로 사실주의적이었지만, 내면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명암의 대비가 굉장히 강렬했구요. 그래서인지 마치 작품 속 인물의 감정이 저에게도 전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라바조는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후대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예술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거칠고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카라바조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이중적이고 불안했던 삶을 그림으로 승화시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삶 중심을 잡고 있었던 듯해요.”

“정상용 카라바조가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화가로 불리는지 알 수 있던 전시회였습니다.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이란 전시회 타이틀처럼 카라바조가 빛의 거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명이 비친 그의 작품들은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조우한 듯해서 금방이라도 작품 밖으로 인물이 걸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 '기술적으로 잘 표현한다' 하는 것 이상의 명장의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물에 대한 사실성과 세밀하고도 생생한 묘사, 여기에 작가의 경험이 뒷받침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원희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로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마치 카라바조의 모든 작품을 설명해주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 속 빛의 방향은 모두 달랐지만, 빛과 어둠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빛을 받는 부분이 아닌 어두운 공간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해 작품을 풍부하게 만든 데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마냥 검은색으로 칠할 수 있었을 부분을 섬세한 색 변화를 통해 무언가를 표현했다는 점에도 감명받았습니다. 작품의 설명을 보지 않아도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카라바조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정
시
경

“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바로크 미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어 흡족했습니다. 특히 카라바조의 강렬한 명암 대비와 사실적인 표현은 마치 작품 속 인물들과 눈을 마주치는 듯한 몰입감을 주었죠. 각 작품이 담고 있는 서사와 감정은 카라바조의 개인사와 겹쳐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이야기를 이토록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감상이 들었는데요. 카라바조의 빛과 어둠 대조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찰나의 감정과 긴장감을 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빛의 표현만으로도 메시지가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임
은
미

“ 카라바조는 화실과 뒷골목을 넘나들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본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의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틈을 줄이다 보면 우리 삶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

정
상
용

“ ‘성 도마의 의심’이란 작품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한 예수가 자신의 상처에 도마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등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전에 근무하면서 대단한 업적과 탁월한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동료 직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라 ‘성 도마의 의심’이 가슴을 울렸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카라바조,
<매장>



카라바조, <성 도마의 의심>



카라바조,
<그리스도의 체포>



강
원
희

“ 카라바조는 종교적인 주제를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작품에 좀더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물들의 강렬한 감정 표현, 드라마틱한 연출, 극명한 명암 대비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표현 기법들은 당시 기존의 르네상스 미술에서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카라바조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은 화가이자 로마 뒷골목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기존의 표현 방식을 뒤집을 수 있던 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 또한 카라바조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우 기존 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
시
경

“ 카라바조는 강렬한 빛과 어둠으로 설명되는 그의 작품 세계만큼 삶도 극단적이고 이중적이었던 인물로 느껴졌습니다. 카라바조를 보면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중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하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곤 합니다. 제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겉모습과 내면의 열정을 조화롭게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날개 꺾인’ asics의 부활

© 아식스 홈페이지

WIDE에 소개된
위기 극복한 기업 사례

- ① 소니
- ② 아마존
- ③ 뉴욕타임스
- ④ 톰툼
- ⑤ 마이크로소프트(MS)
- ⑥ 닌텐도
- ⑦ 모토로라
- ⑧ 카시오
- ⑨ 아식스

월간 <KEPCO>는 올 한 해 동안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을 멋지게
극복한 기업들의 역전 스토리를 소개했다.
이번 호 역시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위기
극복 스토리를 통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지혜를 발견하기 바란다.



부활의 특명, 뒤쳐진 트렌드를 잡아라!

아식스의 적자가 발표될 당시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아식스는 절치부심했다. 2018년 취임한 히로타 야스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저가 모델의 판매를 줄이고 프리미엄 러닝화의 마케팅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을 내걸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우선, 아식스의 아이덴티티로 불린 4선 라인을 오니츠카 라인*에서 과감하게 걷어냈다. 일부 시그니처 라인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4선 라인을 없애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또한, 오니츠카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재정립하기 위한 고급화 전략에도 집중했다. 오니츠카는 아식스와 달리 스니커즈에 집중한 라인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고급도 중저가도 아닌 애매한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아식스는 상권 차별화를 통한 승부수를 던졌다. 도쿄의 명품거리 긴자를 비롯해 새로운 명품거리로 부상한 오모테산도에 대형 오니츠카 매장을 선보이면서 2030(MZ)세대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오니츠카 매장은 일본 젊은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하는 유명 점포로 자리 잡았다.

오니츠카 라인*: 아식스 전신인 오니츠카 타이거의 운동화 라인업.

부활의 터닝포인트 ‘도쿄올림픽’

아식스는 마라톤화 시장에서도 자존심을 회복했다. 2019년 적자 이후 대대적인 리브랜딩 계획을 준비했는데, 그 중심엔 일본에서 펼쳐진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2020 도쿄 올림픽’이 있었다. 아식스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 올림픽을 통해 부활을 노렸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제때 열리지 못했다. 당시 위기를 겪던 아식스의 입장에선 한시가 아쉬운 상황일 수 있었지만, 이들은 미뤄진 1년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도쿄올림픽과 협업한 개성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 내놓으며 전 세계에 아식스 제품을 알리는 데 주력한 것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제품은 단순히 올림픽 굿즈를 넘어 ‘한정판 대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아식스의 전략 중 하나인 ‘한정판 콜라보’의 시작은 어쩌면 도쿄올림픽이었을지도 모른다.

디자인과 기능의 결합, ‘창사 이래 최고 전성기’

아식스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실적이 고공행진 중이다. 도쿄올림픽이 있던 2021년 말 매출액 4,040억 8,200만 엔을 기록한 아식스는 지난해 말 매출 5,704억 6,300만 엔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매출 성과는 과거 단순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형형색색의 색 조합과 기능성을 강조하며 최신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도 아식스는 다시 빛났다. 도쿄올림픽 마라톤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벨기에의 바시르 압디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파리’와 함께 은메달을 획득하며 아식스의 기술력을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렸다.

아식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아식스의 오랜 팬인 패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와의 협업을 통해 아식스의 시그니처 러닝화 ‘젤’ 시리즈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가장 아식스다운 디자인에 편안함을 더한 젤 시리즈는 Y2K(2000년대 초반) 패션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템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아식스는 적자 발표 후 5년 만에 창사 이래 최고 전성기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활에 성공했다. 빠른 부활을 이뤄낸 아식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전성기를 이어갈지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실한 줄로 엮는 세상, 뜨개



ootd처럼 나열해본 뜨개옷, 뜨개가방

차장으로 막 승진했던 2022년도에 뜨개를 시작했습니다. 승진한 뒤의 회사 생활은 자신에게 실망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모르는 것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인가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렇게 초임 차장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어릴 적 가끔 목도리를 뒀던 것이 생각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실과 바늘을 샀는데, 어느덧 뜨개는 제 일상을 사로잡은 취미가 되었습니다.



실과 바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뜨개는 앉을 자리만 있다면(심지어 서 있어도) 할 수 있는, 휴대가 몹시 용이한 취미입니다. 뜨개를 시작한 이후로 서울-나주 왕복 기차를 탈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4시간의 뜨개 시간이 생기니까요. 10시간의 비행? 오히려 좋습니다. 약속 시각에 늦는 상대를 기다리는 시간도 싫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버리는 시간, 휴대폰만 보는 등의 붓 뜨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삶의 빈틈을 뜨개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돌 거리를 꼭 가지고 다니다 보니 '이 옷은 캐나다로 여름휴가 가서 만들었지' 하는 추억도 생깁니다. 이렇듯 뜨개로 만든 완성품마다 서사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지만요.



누구나, 무엇이든 들 수 있다!
제가 뜨개인으로 소문나면서 저에게 뜨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손재주가 없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입니다. 뜨개의 세계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바늘에 찔려도 죽지 않으며, 뜨다가 틀리면 풀고 다시 하면 됩니다. 물론 틀리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뜨개는 똑같은 기술의 반복이고 무엇이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해보고 싶다면 일단 시작해 보세요. 유튜브에 수많은 뜨개 선생님들이 계시고 요즘은 다이소에도 뜨개 코너가 꽤 크게 있어 저렴한 실과 바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저를 찾아 오셔도 되고요! 이번 겨울, 보드랍고 폭닥한 뜨개의 세계에 같이 빠져봅시다!



내 일상을 위로하는 뜨개
뜨개는 제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일단 제 마음에 속 드는 도안과 도안에 어울리는 색깔의 실, 실에 어울리는 바늘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도안을 따라가다 보면 실 한 줄이 어느새 옷이 되거나, 가방이 되거나, 모자가 됩니다. 뜨개의 가장 좋은 점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풀어내서 고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생에서는 실수한 곳으로 돌아가서 고치기 정말 어렵지만 뜨개에서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고치는 것이 귀찮으면 흐린 눈으로 못 본 척해도 됩니다. 머리를 비우고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무언가 완성되고, 내가 이런 예쁜 것을 만들었다는 자기효능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피그말리온이 왜 자기가 만든 작품과 사랑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취미는 없었습니다. 옷을 한두 벌 뜨다가 실력이 점점 늘면서 마침내 사내 뜨개 동호회를 만드는 데 이르렀습니다.



좋은 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저는 내향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을 즐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뜨개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무얼 뜨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는지 다들 한번 해보라고 영입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질까, 본사 차장이 일은 안 하고 논다고 욕을 먹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매드니터스(뜨치광이)'라는 본사 뜨개 동호회를 개설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이런 느낌을 강조하고자 여러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홍보 포스터를 붙였는데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아서 한동안 무척 속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동호회원이 꽤 모였고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만큼 내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모인 집단이라 활발히 활동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모여서 귀여운 도안을 함께 뜨기도 하고, 누군가 멋진 편물을 완성하면 다 같이 예뻐하고 칭찬하는 사랑스러운 동호회입니다.



카페에서 한창 뜨개 중인 홍혜빈 차장



뜨개옷, 뜨개양말 신고 뜨개질하는 중



동호회 활동사진

#INSTAGRAM

이 코너는 KEP-CN과 KEPCO-EP사업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구명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척지사



우리 지사는 2013년부터 꾸준히 연탄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추운 날씨에 더욱 마음이 시릴 수 있는 계절,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삼척지사 #연탄나눔 #꾸준히 #사회공헌활동
#사랑너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 #마음의 온기

경인건설본부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345kV 고덕-서안성T/L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 주변 지역인 안성시 원곡면 복지시설,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식료품 지원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전력설비 건설 주변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경인건설본부 #345kV_고덕-서안성_T/L_건설사업
#사회공헌활동 #사회적_책임 #적극적_소통

충북본부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우리 본부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현장점검 컨설팅에 나섰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를 위한 작업체계를 완벽히 나갈 계획이다.

#충북본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현장점검_컨설팅 #안전사고_예방 #집중하는_모습들

제주본부



우리 본부는 비양도에서 해안정화 활동을 펼쳤다. 에메랄드빛 바다 주변 3.5km의 돌레길을 따라 쓰레기를 줍다 보니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한눈에 느껴졌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하자고 다짐했다.

#제주본부 #비양도 #해안정화활동 #일회용품_줄여
#바다는_예쁨 #푸른바다_더_푸르게

전북본부



우리 본부는 봉동 변전소 배전전력구 인출 분기구에서 밀폐공간 현장훈련을 시행했다. 전력구 내에 용접 작업 중 가연성 물질 폭발 화재로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질식된 상황을 가정해 산업재해 긴급조치 절차서에 따라 작업중지부터 사후조치 단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에 맞춰 조치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현장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전북본부 #배전전력구_밀폐공간_현장훈련
#안전제일 #중대산업재해_대응 #열심히_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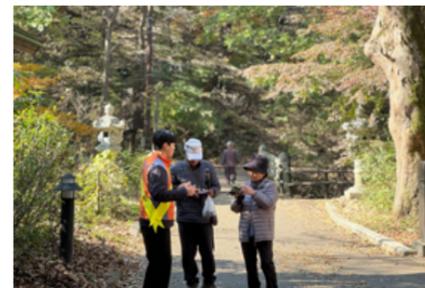
안산지사



우리 지사는 지역사회 에너지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Energy-Dream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안산시민햇빛발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기증하는 사업이다. 전기 에너지를 반영구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과 에너지 절약의 교육, 홍보 장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안산지사 #Energy-Dream_지원_프로젝트
#안산시민햇빛발전 #태양광 #전기에너지_지원

대전세종충남본부



우리 본부는 건조해진 날씨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자칫 송전선로 인근으로 번져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계룡산에서 등산객들을 만나 전력설비 주변 산불 신고방법, 산불 화재 시 안전행동을 안내했다.

#대전세종충남본부 #산불예방캠페인 #계룡산
#송전선로_고장예방 #정전_예방 #예방이_먼저

서울본부



우리 본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른바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한양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전력시장 교육, 배전센터고객센터·배전운영실 견학도 시행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우리 회사를 더 가깝게 느끼고 꿈과 비전을 실현할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서울본부 #청소년_현장직업체험_프로그램 #청진기
#한양중학교 #견학 #꿈을_그리는_시간

원고사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co.co.kr
문의 061-345-3128

KEPCO NEWS

2024. 12

신재생사업 이어

사우디에서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 연속 수주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서 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광 전력청이 발주한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아1 사업은 각 1.9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하여,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본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 원(약 30억 달러)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참여하여 약 2조 원의 해외 동반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하여 건설 중으로, 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함으로써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한전은 잇따른 수주 쾌거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분기 누계 연결기준 5.9조 원 영업이익

한전의 연결기준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69조 8,698억 원, 영업비용은 63조 9,241억 원으로 영업이익 5조 9,4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조 3,991억 원 증가

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4조 1,833억 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8조 2,158억 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3년 세 차례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판매수의 증가와 연료 가격 안정화로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판매량이 0.8% 증가했고, 2023년 세 차례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6.9% 상승하여 4조 9,430억 원 증가했다. 자회사의 연료비는 4조 325억 원 감소했고, 민간 발전사에 대한 전력구입비도 3조 5,247억 원 감소했다. 원전과 LNG, 신재생 등에 대한 발전량과 구입량은 증가했으나, 석탄화력은 자회사 발전량과 민간 구입량 모두 감소했다. 또한, 연료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감소했다. 최근 중동 분쟁 및 러우 전쟁 지속, 고환율에 따른 에너지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나, 10월 24일 시행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4분기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개최로

에너지분야 정보보안 협력체계 강화

한전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전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공공 에너지분야 특화 사이버 훈련인 '제4회 ELECCON(일렉콘 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2024'를 시행했다. 훈련 결과, 에너지 기관에서는 한국남동발전 'KOEN'팀이, 대학부에서는 송실대학교 '성장치트로워드'팀이, 고등부에서는 한세사이버보안고와 선린인터넷고 학생으로 구성된 '일렉트론'팀이 1위를 차지했다.

한전은 주요 국가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각종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저출생 해결 실천 선언식 한전 등 빛가람혁신도시 10개 이전기관은 11월 21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과 지역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 위한 실천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저출생 현안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일환으로, 협의회는 선언식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및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행복한 결혼·출산·육아를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를 다짐했다.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 개최

한전은 11월 18일 나주 본사에서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사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실행에 대한 한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로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은 한전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과제"라면서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미터링 Week 개최

한전은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AMI 보급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미래 비전을 내외에 공표하고자 '스마트미터링 Week 행사'를 개최했다.

한전은 2010년 50만 호에 대한 AMI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 2,005만 호에 대해 보급사업을 완료했다. 고객들은 AMI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전은 전력 설비의 실시간 감시제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배전망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 데이터와 통신, 금융, 공공 등 타 데이터를 융합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스마트미터링 Week는 3일간 기술위원회 발족식, 기술포럼, 국제협력 MOU, 국제 콘퍼런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 상생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종합대상 수상

한전은 11월 13일 한국 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최고 등급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세계적 권위의 인적자원개발 단체인 '美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하는 'BEST HRD Award' 수상에 이은 쾌거로 국내기업 최초로 국내외 BEST HRD 분야 최우수상을 한 해에 동시 석권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기업의 경영방침과 연계된 인재육성전략과 체계, 인사혁신 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HR 분야 전문가와 교수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권위의 HRD(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이다.



한전아트센터 뮤지컬 Bloody Love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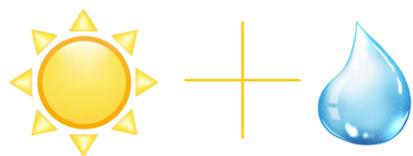
30년 역사의 체코 뮤지컬 드라마쿨라를 재해석한 뮤지컬 <블러디 러브>가 1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1막과 2막을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볼거리는 물론 탄탄한 스토리와 음악으로 기존의 드라마쿨라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불멸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500년 동안 간직한 비운의 전사 역에는 김법래, 테이, 최진혁이 캐스팅되었으며, 그 밖에도 남우현, 후이, 상연, 김형묵, 김준현 등 실력과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01 이모지 번센스 quiz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Hint. 36~39쪽 'ESSENTIAL KEPCO'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OO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한전도 국민에게 그러하기를 바란다. (2글자)



정답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 | | | | | |
|-----------|-----------|-----------|-----------|-----------|
| 이*근(3471) | 오*태(4898) | 박*영(6127) | 박*화(2655) | 문*빈(0636) |
| 권*수(7820) | 이*영(2385) | 강*목(8331) | 박*우(3313) | 김*현(7306) |
| 김*화(1856) | 하*근(4292) | 백*영(4200) | 이*진(8949) | 이*한(5890) |
| 문*혁(0685) | 최*민(4379) | 손*선(3983) | 김*민(0982) | 백*순(9984) |
| 조*현(0622) | 박*원(5794) | 공*희(5698) | 최*훈(4943) | 나*혜(0883) |
| 주*희(7309) | 권*현(3156) | 박*경(7311) | 송*인(9691) | 하*훈(4130) |

03 지난호 정답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